

동명동~문화전당 도보 문화관광코스 개발

광주시 민간위탁자 모집

도보투어 7개 코스 운영

토요일 해설사 동행 투어

젊은 감각과 오래된 골목이 어우러져 광주지역의 관광·문화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동구 동명동 일대가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된다. 현대식 디자인의 카페, 식당, 공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광주의 경리단길로 통하는 동명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둘러볼 수 있게 꾸며진다.

광주시는 25일 “동명동-문화전당 주변 도심 관광 트레일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5천만원을 들여 도보 코스 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동명동과 문화전당 일대 구도심의 역사, 인물, 생태문화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들을 엮어 도보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김현승 가옥(김현승의 플라타너스길), 외제미술관(허백련의 예술유람길), 정음성 거리(정음성 음악산책길), 충장로(K-Pop 아이돌 골목길), 상무관(민주열사 오월길), 예술의 거리(광주꽃과 나무이야기길), 농장다리(동명동 마을길) 등 동명동과 문화전당 일대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7개 코스를 운영한다.

코스는 4km 이내로 2~3시간 도보 투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

시계탑 앞에서 해설사가 동행하는 정기 투어를 진행한다.

단체 관광객이 있으면 매일 수시 투어도 진행한다.

동명동 및 구도심의 옛 사진을 전시, 광주 근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안내소에는 도보 관광코스과 프로그램,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리플릿과 팸플릿을 제작·비치한다.

안내소에는 해설사가 상주하며 안내를 맡는다.

광주시는 동명동과 구도심 일대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홍보물과 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월 동명동 및 문화전당

일대 문화제, 사적지, 전통가옥, 인물, 음식 등 관광자원을 조사하고 스토리텔링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과 관광객 사이에서 명소로 떠오르는 동명동과 문화전당 일대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일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코스로 꾸며진다.

/최현배 기자 choi@

충장축제·문화재야행 등

동구, 구정 베스트 5 선정

광주시 동구가 올해의 ‘구정 베스트5’를 24일 발표했다.

선정된 5개 우수시책은 ▲제15회 추억의 충장축제 ▲문화재야행 달빛걸음 ▲동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0억 확보 ▲웨딩의 거리 무인주차장 조성 ▲이웃이 있는 드림민원실 사업 등이다.

‘구정 베스트5’는 주민 2554명이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 정책투표에 참여해 최종 순위를 가졌다. 이중 태풍 ‘콩레이’로 인해 3일간 단축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파가 몰린 ‘제15회 추억의 충장축제’와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각종 공연·체험 프로그램인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동명동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도시재생의 기반을 다졌으며 방문객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 웨딩의 거리 무인주차장 조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용희 기자 kimyh@

일자리우수·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22개사 인증서 수여

금융·세계 등 인센티브 제공

광주시가 25일 “시청에서 전달 2018년 일자리우수기업과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에 고용 증대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는 ㈜지용금융 등 20개사가 선정되었고,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인증중소기업으로는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 등 2개사가 선정되어 이날 인증서를 받았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일자리우수기업인 증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대상은 2년 이상 정상가동하는 광주소재 기업으로 고

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올해에는 24개사가 공모에 참여해 20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까지 총 287개사가 인증을 받아 지역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의 4대 지표 중 인증평가에서 2개 이상의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시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개사가 참여해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열린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심사위원회에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노사관계로 광주형일자리외의 취지를 적극 공유하고 실현하는 기업으로 최종 2개사를 선정했다.

광주형일자리외의 첫 해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영예를 안은 (주)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은 적정임금과 노사책임경영분야에서, 매일유업(주)광주공장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이날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경영안정자금 300만~500만 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디자인 상품화 지원 등 총 14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2개사에는 각각 5000만원의 인증지원금이 지원된다. 인증지원금은 일자리 창출여건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고용안정,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감사패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이 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최병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광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5일 “최근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생산품 판매 촉진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복지재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현 대표이사는 “함께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을 모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면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이사는 2016년 취임 직후부터 중장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장애인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재단 사무처를 비롯하여 위탁 운영 중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뜻을 함께했다. 그 결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도서관 겨울방학 독서프로그램 풍성

광주시 북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일곡·운암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 ▲단기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생 5-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1층 문화체험실에서 ‘나를 철학하자-행복한 책읽기, 자아를 찾는 고전 읽기’를 주제로 독서교실이 펼쳐진다.

이번 독서교실은 김지아 논술지도사 및 임정량 햇살마루 작은도서관 명예교장이 강사로 나서 ‘빨간 머리 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다음달 3-30일에는 주민과 어린이 등 90명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피로 신년다짐 적기’ (1월3일), 책과 함께하는 보드놀이 ‘인성 UP 보드’ (1월9-11일), 자

연과 함께하는 ‘꼬마정원사’ (1월24-25일), 북 들어오는 돼지저금통 만들기 (1월29일), ‘겉쟁이 빌리와 걱정인형 만들기’ (1월30일) 등 5개의 단기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운암도서관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생 4-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김정자 동화구연지도사 등이 강사로 나서 ‘다 같이 하자, 환경 지킴이’를 주제로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약자지결, 축제마당’ ‘감성스피치’ ‘미션! 콩쥐의 인권을 찾아라’ ‘영어 그림책으로 신나게 놀아요’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ilgoklib.bukgu.gwangju.kr) 또는 북구청 도서관과(062-410-6894, 6958)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

남구, 취약계층 입학생 사랑의 책가방 전달

광주시 남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한다.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 61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책가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학생들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이들 중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초등학생 22명과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중학생 39명이다.

남구는 26일까지 책가방을 구입한 뒤

27일부터 이달 말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책가방을 전달하거나,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아이들이 책가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예비 초등학생 및 중학생 아이들에게 새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책가방을 지원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꿈도 무력무력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